



물세례와 성령 세례

말씀 : 마가복음 1: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예식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8:19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엄숙한 주님의 명령이요, 지상 교회가 위임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세례는 성직자를 통해서 행하여지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성직자는 대리인에 불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자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4,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물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에 내 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은밀히 죄를 범하였으

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네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시치미를 뚝 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왕의 권세로 나단 선지자를 잡아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13절에 보면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100%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 51:1,2,7,10절에 보면, "하나님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7)" "하나님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10)"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또 시편 6:6절에도 보면 그는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이때까지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고 진실 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소욕을 좇아 자행자지 한 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한 죄. 안일하고 개으른 죄, 이기적인 죄, 남을 욕하고 입술로서 범한 죄 등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낱알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찌꺼기와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막아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체한 것같이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진실 되게 회개하면 막혀 있던 모든 묵은 찌꺼기가 내려가듯 심령이 뚫리

고,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 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times of refreshing"으로서 상쾌하고 기쁜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상쾌하고 기쁜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됩니다.

둘째,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은 표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32편5절에 보면 회개한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 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즉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우리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 탄식했습니다. 이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2:38). 이 말씀에서 볼 때 세례는 죄 사함을 받은 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과거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표입니다.

마가복음 16:15,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

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중심을 지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입으로 신앙 고백한 것을 물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비난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도 못 짓습니다.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 환자라고 놀림을 받고 직장에 가면 상관들이 괜히 트집을 잡고 괴롭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용소에서 평생을 짐승처럼 강제 노동을 하며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회교권에서는 그 사회에서 추방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을 두더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더지는 어두운 땅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아예 눈이 머리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나오면 불안해서 어두운 땅속으로 들어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이

라는 사실을 뚜렷이 밝히고 믿는 자로서 신앙 중심을 지키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를 개척할 때 하루는 제주 교대 캠퍼스에서 한 자매님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자매가 **키는 좀 작지만 눈이 크고**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매는 수업에 들어갈 생각이 하지 않고 서서 울고만 있어서 제가 오히려 난처했습니다. 그 날 오후에 그녀는 센타에 나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캠퍼스에서 운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아서 이 때까지 남들이 다 하는 연애한 번 못 해봤다는 운명주의로 인해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생활도 재미가 없어서 말없이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도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자매가 기쁨이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센타에 몰려와서 저는 이들과 1:1 말씀 공부를 감당하느라 즐거운 비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5명의 남은 자들이 성장함으로 교대 개척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골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번이나 센타에 와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아예 학교도 못 다니게 자취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데리고 가던 중 그 자매는 버스 정류장에서 도망쳐서 두 달 동안 숨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방학 때 시골에서 주일 날 교회에 다녀왔다고 아버지가 띠를 가져다가 자매 목을 조르기도하고, 죽이겠다고 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밤에 도망쳐서 교회에서 자고, 나와 두 달 동안씩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경찰 출신인데 두 번이나 저의 집에 와서 가택 수색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켰습니다. 제가 다시 광주로 발령이 났을 때도 그는 학생 총무로 제주 역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광주 2부 김누가 스태프 목자와 결혼하여 송연옥 자매가 김루디아 스태프사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 가

정을 쓰셔서 제가 못 다한 제주대 제자양성역사를 넘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세례 받을 형제자매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믿음 중심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날로 캠퍼스가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이 시대 캠퍼스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는 UBF 멘으로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물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이지, 물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성령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하여 줍니다.

마가복음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했습니다. 이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죄를 씻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주시는 세례로서 죄를 불 태워 아예 죄를 없애주셔서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세례는 비둘기 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강력하게 불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1985년 남원 여름수양회 때 수양회에 처음 참석한 양 이임행 형제 (Paul Lee 선교사)는 요한 복음 4장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마치 200볼트 전기에 감전 된자 같이 2시간 동안 엎드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새사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하였든 간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죄 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이 되

게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시커먼 얼굴을 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3:6,7)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단일 사건을 지칭하는 '중언법(重言法)'으로서, 칼빈은 물과 성령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물과 같이 정결케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사람이 새롭게 출생하는 단일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심령에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1: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롬10:9)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롬10:17).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 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성령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말씀 역사를 이루어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1대1 말씀공부 역사를 이루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아담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영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상만 변화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와 본성이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성이 훌륭하고 선

한 일을 많이 하고 부와 권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예배나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내면에 참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마치 바다의 저류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비록 세상 물결이 요동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거듭나야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3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이미 오늘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회개의 세례만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물세례와 함께 근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